마태오 복음서 24장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다(마르 13,1-2; 루카 21,5-6)

1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들을[1] 가리켰다.
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원후 70년에 로마 장군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을 불태웠을 때 성취되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지 약 40년 후의 일이다.

재난의 시작(마르 13,3-13; 루카 21,7-19)

3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여쭈었다. "저희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스승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표징은 어떤 것입니까?"

재림은 세상 종말에 사람의 아들이 오심을 뜻한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일어난다는 표징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주의를 시키시면서, 오직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것을 깨어 기다리라고 강조하신다.[2]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1)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현혹할 것이다.
2) 교회 역사 안에서 많은 이단이 신앙인들을 현혹하였다. 오늘날에도 사이비 종교들의 출현은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6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

1) "성전 건물들"은 기원후 60년대에 완공되는 예루살렘의 새 성전으로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42쪽, 각주 1).
2) 위, 각주 3 참조.

아직 끝은 아니다.
7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8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다.

1) "반드시"라는 말에 담겨있는 당위성은, 어떠한 숙명이나 인간들의 기획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계획에서 오는 것을 말한다.[3)]
2) "진통" 곧 '산고'는 장차 일어날 일의 불가피성을 의미한다.[4)]
3) 전쟁, 기근, 지진 등은 묵시문학의 전통적인 주제에 속한다.[5)]

9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속에 몰아넣고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0 그러면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서로 팔아넘기고 서로 미워하며,
11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6)]
12 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이의 사랑이 식어 갈 것이다.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 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14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될 터인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7)]

1) 마지막 때의 특징적인 현상인 "환난"은 복음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는 고난, 또는 정치적이거나 우주적인 어떤 사건보다는 박해를 가리킨다.[8)]
2) 세상 종말의 결정적인 징표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짐으로써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이다.
3) 환난 중에도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디어 낸 신앙인들의 증거의 삶은 복음이 더욱 선포되는 계기가 된다.
4)"끝"은 현세의 종말이며 하느님 나라의 궁극적 개시를 말한다.[9)]

---

3) 위, 각주 6.
4) 위, 143쪽 각주 8 참조.
이사 13,8 : 불안에 떨리라. 그들은 경련과 고통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리라. 서로 넋 나간 듯 쳐다보는데 그들의 얼굴은 불처럼 달아오르리라.
호세 13,13 : 그를 낳는 어미의 산고가 다가오지만 그는 지혜롭지 못한 아들, 때가 되어도 아기집에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5) 위 각주 7 참조.
2역대 15,6 : 민족이 민족을, 성읍이 성읍을 쳐부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온갖 재난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기 때문입니다.
6) 2테살 2,3 :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자는
7) 로마 10,18 :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
8) 앞, 각주 9.
9) 위, 각주 15.

가장 큰 재난(마르 13,14-23; 루카 21,20-24)

15 "그러므로 다니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 읽는 이는 알아들으라. —
16 그때에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17 옥상에 있는 이는 물건을 꺼내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18 들에 있는 이는 겉옷을 가지러 가려고 뒤로 돌아서지 마라.

1)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은 마귀나 '그리스도의 적', 또는 종말의 특징을 이루는 배신과 배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10]
2)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3) "유다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곧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11]
4) 재난이 시작되면 세상 것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12]

19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20 너희가 달아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피난하기 어려우므로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이나 안식일에는 더욱 그러하다.

21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터인데, 그러한 환난은 세상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13]
22 그 날수를 줄여 주지 않으시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 주실 것이다.

1) 환난의 날을 줄여 주시는 것은 오직 하느님 소관이다. 곧 세상 심판 때에 "선택된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
2) "선택된 이들"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14]

23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아니,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15]

---

10) 위, 각주 15 참조.
11) 위, 각주 18 참조.
12) 창세 19,26 :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다.
13) 요엘 2,2 : 어둠과 암흑의 날 구름과 먹구름의 날이다. 여명이 산등성이를 넘어 퍼지듯 수가 많고 힘센 민족이 다가온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세세 대대에 이르도록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14) 앞, 144쪽, 각주 23.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큰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16]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둔다.
26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광야에 계시다.' 하더라도 나가지 마라. '보라, 골방에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27 동쪽에서 친 번개가 서쪽까지 비추듯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17]
28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1)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은 혼란기에 많이 등장하였고, 현대에도 사이비 종교들은 생성 소멸한다.
2)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라는 격언은 사람의 아들이 실제로 재림 하신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분께서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예견해 보느라고 동요하지 말라는 것이다.[18]
3)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다. 거짓 그리스로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신앙을 흔들며 현혹한다. 늘 깨어 조심하고 말씀에 충실함으로써 싸워 이겨야 한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마르 13,24-27; 루카 21,25-28)

29 "그 무렵 환난이 지난 뒤 곧바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

15) 1요한 2,18 : 자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온다고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16) 신명 13,2-4 : 너희 가운데에서 예언자나 환몽가가 나타나 너희에게 표징이나 기적을 예고하고, 그가 말한 표징이나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자.' 하고 그가 말하거든, 너희는 그 예언자나 환몽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2테살 2,3-4 :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자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느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17) 1코린 15,23 :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맏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1테살 2,19 :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누가 과연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스러운 화관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2베드 3,4 : "그분의 재림에 관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소? 사실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창조 이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 않소?" 할 것입니다.
1요한 2,28 : 그러니 이제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재림 때에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18) 앞, 각주 25.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19]
30 그때 하늘에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면서,[20]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31 그리고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21] **그들은 그가 선택한 이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1) "구름을 타고"라는 것은 구약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써, 사람의 아들이 재림하실 때의 표현이다.[22]
2) 선택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의미한다.[23]

무화과나무의 교훈(마르 13,28-31; 루카 21,29-33)

32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35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1)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줄 알듯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라는 것이다. 무화과나무와 여름은 이 모든 일과 재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2)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된다.

깨어 있어라(마르 13,32-37; 루카 17,26-30.34-36)

36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24]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

---

19) 에제 32,7 : 내가 너의 빛을 끄는 날 나는 하늘을 가리고 그 별들을 어둡게 하리라. 해는 구름에 가리고 달은 제빛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요엘 2,10 : 그 앞에서 땅은 떨고 하늘은 뒤흔들린다.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은 제 빛을 거두어들인다.
20) 즈카 12,10 : 나는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 위에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영을 부어 주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를, 곧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며, 외아들을 잃고 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맏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21) 1테살 4,16 :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22) 앞, 각주 28 참조.
23) 위, 각주 29 참조.

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37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38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39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25]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40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2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43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26]
44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1) 하느님의 시간은 사람이 알 수 없다.
2) 도둑이 갑자기 침입하듯이 주님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깨어 준비한 생활을 한 사람을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루카 12,41-48)

45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27]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46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4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48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49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50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51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 주님의 재림하시면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 시

---

24) 1테살 5,12 :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25) 2베드 3,6 : 그때의 세상은 홍수에 잠겨 물로 멸망하였습니다.
26) 2베드 3,10 :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스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27) 시편 104,27 : 이 모든 것들이 당신께 바랍니다, 제때에 먹이를 주시기를.

간은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 늘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주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이다.

2)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믿음과 불신,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3) 신앙인들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되고, 말씀에 충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